

CNPC, 발해만 10억톤 유전 발견

중국 최대의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는 발해만에서 총 매장량 10억톤(73억5000만배럴)에 이르는 유전을 발견했다고 5월4일 발표했다.

CNPC는 새로 발견된 지동난푸 유전이 중국 북부 허베이성 당산시 차오페이덴강구에 자리잡고 있으며 면적은 육상부분이 570km², 연해부분이 1000km²라고 밝혔다.

CNPC는 2004년까지 40년간에 걸친 지동지역 탐사를 통해 석유 매장량 1억톤, 연간 생산량 100만톤에 이르는 5개의 연안 유전을 발견했다.

난푸유전 발견이 중국의 안정적인 석유 증산과 안전한 석유 공급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환 발해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CNPC는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7/05/07>